

## 人間과 戰爭



허 운 나

〈漢陽大교수 · 컴퓨터과학연구소장〉

이미 걸프에서 전쟁이 시작되지 일주일이었다. 世界人の 이목이 모두 걸프에 집중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感傷과 실질적인 이익이 교차되면서 지구인 모두 시시각각 날아오는 소식에 귀기울이고 있다. 反戰시위도,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원하는 찬성시위도 난무한다. 이 시점에서는 오늘의 이 참담한 전쟁이 다음에 올지 모르는 더욱 가공할 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해 보고, 전쟁의 목적도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번 戰爭의 의도는 싼 석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석유를 움직이는 권한이 전략적으로 잘못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 美國은 석유 1배럴당 18달러 수준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걸프로 보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담 후세인이 세계 석유 저장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석유를 멋대로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산업을 협박함으로써, 이라크가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의 戰爭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이 아니면 점점 더 사담의 횡포를 막

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담 후세인의 야망은 단순히 기름값을 올려, 이윤을 얻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랍세계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군사력으로 무장된 거대한 이라크를 건설하는데 있다. 후세인에게 기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주면, 세계가 황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그는 자신에게 핵무기 등을 공급해주는 나라에는 유가를 내려주고, 테러리즘을 교사하고, 충분히 축적된 富를 이용하여, 석유공급을 멋대로 중단하여, 서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지지하게 할지도 모른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후세인과 같은 사람의 계임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점점 더 후세인이 강해지면,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야기되고, 서방 세계에 미치는 그의 위협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다. 설혹 외교적 수단이 성공해서 이번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平和의 승리는 사담 후세인의 군사력을 완전히 견제하여 걸프지역에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한, 단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戰爭은 어떤 형태이건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戰爭의 목적이 진정 가치있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목적은 단지 油價를 몇퍼센트 낮춘다든지, 쿠웨이트를 독립시킨다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수억의 인간의 평화와 복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平和란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란 수단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아이러니가 가슴아픈 일이긴 하지만…….

6.25와 월남전의 경험은 전쟁의 心理的, 육체적, 물질적 모든 댓가를 우리 국민에게도 뼈저리게 안겨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歷史的으로 뿐만 아니라 피부로 알고 있다. 전쟁의 철저한 非人間性을…….

그럼에도 우리는 CNN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그 어느때보다 첨단적 전쟁게임에 거의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공학은, 시청자로 하여금 점점 더 많고 더 빠른 정보를 요구하도록 부채질하고, 이에 편승한 미디어들은 전쟁의 작전에 힘써야 할 사람들을 자주 불러내어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보챈다. 현대인은 참을성이 없다. 전략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최고로 줄이기 위해 「속진속결」을 내세우자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처럼 하루 이틀만에 완전 싹쓸이를 하지 않으면, 금방 전략이 뒤바뀌는 것이 아닌지 모두 호들갑을 떠난다. 현대전에서의 적국에 대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국민들의 이런 성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나 지휘관들이 자주 미디어 앞에 서고 있다. 알고 싶어하는 심리는 이해가 되지만, 일단 시작된 전쟁은 가능한한 희생을 줄이고 승리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론이 행여 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도 주어서는 안된다. 감정에 휩싸이기 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다국적군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전쟁으로 아들과 딸들, 엄마와 아빠, 남편과 아내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할 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로 걸프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장기

적인 平和를 가져올 수 없다면 이 전쟁으로 치른 희생은 허사가 되고 만다.

인간의 역사는 후세인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점철된 전쟁의 역사였다. 20세기말의 첨단적 무기의 가공할 정확성과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는 욕망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인간은 끊임없는 야망과 그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동경으로,—그것이 바람직한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인류에 희망을 주는 많은 사태를 가져오지만—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때로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또는 國益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神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대중을 선동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부추기고 대중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서슴없이 희생시켰다. 즉, 지도자의 결정이 대중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사실상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들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딸린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현명한 대중에 달렸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현명한 대중은 냉철한 판단력과 따스한 피와 욕심과 어리석음의 결과를 내다볼 줄 아는 예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고, 험사리 어떤 ism이나 主義, 특정 종교 등에 맹목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므로써 이와는 다른 믿음이나 주의를 가진 사람들을 배타하고 질시하는 편견에서 해방된 사람일 것이다. 누군가는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곧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지만, 나는 아직도 우리 인류의 최후의 희망은 人間性과 理性에 있다고 믿는다.

이는 다시 말해서, 人類의 미래는 얼마나 우리 人間속에 內在된 人間性과 理性을 잘 갈고 닦느냐(cultivate)에 달려 있으며, 새삼, 진정한 의미의 教育의 중요성이 되새겨진다. 人間의 투쟁의 원인을 모두 경제적으로만 돌리려는 현대의 세태속에서, 이런 나의 관점은 지나치게 순진(naive)한 것인가?